

제철 관계자들의 마을 ‘스가야 다타라 산나이’

스가야 다타라 산나이는 일찍이 다타라 제철의 종사자들이 매일같이 일하고, 생활했던 지구입니다. 스가야 다타라의 작업장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 『모노노케 히메』에 등장하는 ‘다타라바(극중에서는 ‘타타라 마을’)'의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통적인 점토제 다타라 용광로에서 사철을 제련하여 고품질의 철을 생산했습니다. 이러한 고된 작업은 3~4 일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연료로 수 톤에 이르는 목탄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제철은 18 세기부터 20 세기에 걸쳐 130 년 가까이 행해졌습니다. 오늘날, 이 마을에는 과거 제철로가 있던 작업장 ‘다카도노’가 일본에서는 유일하게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당시 지배인과 무라게(조업을 총괄하는 기술책임자)는 중요한 장소였던 다카도노의 근처에 거주했고, 노동자의 대부분은 강을 사이에 두고 동쪽에 있는 공동 주택(나가야)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철 공장은 사철이나 목탄을 구하기 쉬운 산간 지역에 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스가야 제철소는 1751 년 다나베 가문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연간 약 200~300 톤의 철강을 생산했으며, 전성기에는 연간 50~60 회의 조업을 실시했습니다.

다카도노와 현존하는 여러 건물은 1967 년에 국가 중요유형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지금은 한가로운 분위기의 조용한 산골 마을이지만, 당시의 건물들은 망치 소리와 용광로의 굉음이 울려 퍼지던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